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안동찜닭 거리에 대형 닭 조형물 등장



10여년 전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안동 찜닭의 탄생지인 안동 구시장 입구에 대형 닭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가 안동찜닭의 명성을 새롭게 알리고자 만든 이 조형물은 높이가 약 2m로 매 시간 정각에 목을 움직이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 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찜닭 가게에서는 손님이 원하면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있기도 하다.

안동찜닭 거리에는 17개의 찜닭 상가가 성업 중이며 안동의 맛을 알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동찜닭은 기름이 아닌 물로 닭을 끓여내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감자, 당근 등 야채

와 당면이 곁들여져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뤄 전국적으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 안동=연합뉴스

미국

톱밥도 톤당 100弗... 건축경기 침체로 품귀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톱밥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나오는 목재 폐기물이 최근 1년여 동안 급격히 감소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톱밥 가격은 2006년 까지만 해도 톤당 25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톤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톱밥은 압축과정을 통해 합판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자동차의 운전대 등을 경량화시키기 위해 미세분말 톱밥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 축산 농가에서는 말이나 닭 등 가축의 축사 바닥에 까는 재료로 애용된다.



툽밥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업체나 농가들이 툽밥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농가는 툽밥 대신 가축 배설물을 말려 축사 바닥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 머니투데이

KFC, 구운 닭고기 판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이 구운 닭고기(그릴드 치킨)를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4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튀긴 닭(후라이드 치킨) 일변도였던 KFC가 웰빙 바람에 편승해 구운 닭고기를 내놓겠다는 얘기다.

더글러스 하셀로 KFC 식품혁신책임자(CFIO)는 "구운 닭고기를 파는 '켄터키 그릴드 치킨(KGC)' 체인을 몇 주 안에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연다"며 "인디애나폴리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샌디에이고 등 6개 도시에서 뼈에 붙은 구운 닭고기가 시험 판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험 결과 KGC 제품이 KFC 제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지방, 나트륨 등의 함유량도 훨씬 적어 웰빙 시대에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KFC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웰빙 컨셉트에 맞춰 지방과 튀김 성분 등 기름기를 최대한 뺀 제품을 개발 중이며 미국에서 선보일 구운 닭고기도 국내로 들여와 판

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FC는 전 세계 1만4000개 이상의 체인점에서 하루 평균 120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KFC는 1990년대 초에도 구운 닭을 판매했으나 장비 공급이 어렵고 닭을 굽는 시간이 오래 걸려 수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 한국경제

영국

국민 식습관 바꾼 '닭 캠페인'

최근 영국에서는 대규모 사육시설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공장닭 판매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일간지 '인디펜던스'에 따르면, 식용닭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보여준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은 공장닭(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밀생닭) 대신 넓은 공간에 놓아키르는 방목닭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식용닭의 복지에 대한 인식증대와 이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비싸지만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인 티엔에스(TNS)가 2만5천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 가금류의 지난 1월 판매실적은 작년 동기대비 35%의 증가를 보인 반면 일반 공장닭 판매는 7% 가량 떨어졌다. 만일 가금류 공급업자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판매호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년 2조파운드 규모의 가금류 산업 공급업자 대부분은 현재의 열악한 닭장을 좀 더 공간이 넓은 사육시설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내 최대 슈퍼체인인 테스코는 이미 방목닭을 비롯해 더 나은 시설에서 사육된 닭에 대한 주문을 2배 이상 늘렸고, 세인즈베리 또한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방목닭을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월 요리사 휴 핀리-휘팅스톨(Hugh Fearnley-Whittingstall)과 제이미 올리버(Namie Oliver)가 ‘닭복지’에 관한 강도높은 캠페인을 벌이자 대형슈퍼마켓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일반닭 판매가 늘었다는 식으로 이 캠페인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변화된 판매실적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TNS 자료를 영국내 다른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면, 공장닭 판매는 1,000만마리 정도 감소했고, 대신 소비자들은 440만마리 방목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닭판매는 평균 4.8%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구매자들이 방목닭이 없을 경우 닭구매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AC닐슨의 소비자분석 매니저 마리아 오코너(Maria O'Connor)는 “만일 소비자들의 방목닭들과 유기농 닭, 그리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자란 닭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면 단

기간내 슈퍼마켓들이 이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소비자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내일뉴스

일본

독감에서부터 시까지 한 번에 잡는 백신 개발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독감 균주에 효과를 보이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일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일반적인 독감백신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지만 바이러스가 자주 변이를 일으켜 이로 인해 매년 다른 백신이 제조돼야 한다.

지난 3월 11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분리된 펩타이드를 쥐에게 투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독감 균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면역학저널’에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다음 단계의 연구로 이 같은 다중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인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약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백신을 서둘러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AIDS나 종양을 비롯한 다른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이번 연구결과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 비강 분무형 AI 백신 개발

일본 연구자들은 지난 3월 12일 고통없는 AI 백신의 최종 개발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백신은 주사제로 투여하는 대신 비강에 분무를 함으로써 고통이 없다고 한다.

비강 분무제는 의학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백신을 쥐와 원숭이의 코에 뿌린 결과 H5N1형 AI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분무제는 H5N1형 AI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 AFP

UAE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요 식품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현지 신문 '겔프뉴스'가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UAE 경제부는 인도·파키

스탄산 바스마티 쌀과 계란, 닭, 생수의 소매가 상한선을 정했다. 상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사재기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겔프지역 국가들은 최근 농산물 값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고유가로 지역경제가 호황을 맞자 인구가 급속히 유입돼 식량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달러 고정환율제 유지로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 가격 상승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 한국경제신문

베트남

'AI 바이러스' 또다시 기승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수도 지역 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3월 7일 밝혔다.

베트남 당국은 "하노이 외곽 속손 지역에 있는 2,000마리의 오리나 닭, 거위 등이 H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 농부들은 근 1년만에 동물 시장에 들이닥친 AI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농림부는 "지역 농부들은 현재 태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적인 AI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부들이

앞장서서 AI 바이러스 감염 동물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의 반 당키 관리는 “AI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울 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된다”면서 “지난 수주 동안에만 베트남 9개 지역에서 AI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약 3,000마리의 조류들이 죽거나 도살됐다.

-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인도

AI 재발생에 따른 가금 살처분 실시

동부 인도에서 발생했던 AI가 진압이 되었다고 발표 후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아 가금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해 지난 3월 10일 수천 수의 닭을 살처분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주 동안 West Bengal의 Murshidabab 지방에 사는 900수의 닭과 오리들이 죽었으며, 지난 1월에 19개 지방 중 13개 지방에서 H5N1형 AI가 발생하여 주(State)내 가금 판매율을 70% 이상 하락하게 만들었다. 

- 로이터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

